

## 북한을 보는 관점들의 차이 :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이병희 (공주대학교 교수)

### 논문요약

이 글은 정치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이 지닌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미지는 적의 이미지, 협력자/동맹자의 이미지, 종속 이미지, 야만의 이미지, 제국 이미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과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가령 적의 이미지는 봉쇄전략, 야만 이미지는 동맹의 추구와 힘의 증강, 불한당 이미지는 북한에 대한 따끔한 응징, 낙후 이미지는 북한을 제거할 기회 및 북한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여러 이미지들은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는 요약(要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경 지식 없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이며 조작적인 이미지의 수용과 변화가, 잘못된 선택과 오해, 편견에서 비롯될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은 사회 과학의 기본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학습은 결국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들을 유익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런 이미지들이 기초를 둘 수 있는 낙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지연 행동을 지적할 수 있다.

주제어: 이미지 이론, 남북한 관계, 낙관적 사고, 적의 이미지, 협력자/동맹자 이미지, 대북 전략

## I. 머리말: 북한을 보는 관점들

북한을 보는 관점이란 개인 혹은 집단이 지닌 북한에 대한 의견 혹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특정한 방식을 의미한다.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하여 말하거나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을 보는 관점은 북한 문제 혹은 그 지도자에 있어, 특별한 편을 들게 한다. 개인 혹은 집단이 지닌 관점은 북한의 행동과 전략에 대한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상황 -가령 북핵 문제와 남북한 상호작용,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을 해석하는 방법에도 그러하다. 북한을 보는 관점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아래의 보기를 들어보자.

몇 년 전, ○○대학의 수험생 면접이 있었다. 정년을 눈앞에 둔 ○○○○학과 소속의 아무개 교수는 면접 위원으로 지원자들에게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들의 다양한 적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수는 수험생들에게 ‘만약 과거 한국전쟁처럼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수험생의 답은 교수의 관점과는 180도 달랐다.

“저는 북한군을 향해 총을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교수는 그러면 북한에 의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수험생이 다시 답하기를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북한군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고 쓴 현수막을 들고 북한군을 설득하겠습니다.”

교수는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지원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원자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생각에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는 듯하였다.

이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관점들의 차이는,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간 북한을 보는 관점의 이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분열을 낳을 거라는 비관적 견해도 제시할 수 있다. 갈등의 관점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보는 관점을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학습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세대 차이가 세

대 분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문인철의 경험적 연구는 이런 사태를 잘 보여준다.<sup>1)</sup>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글은 북한을 보는 관점들의 차이에서 연유한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이미지(image) 이론을 통하여 찾고자 한다. 북한의 이미지를 단순히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형성과 활용 방안 및 부정적 파국의 가능성, 이미지 조작의 가능성과 예방책, 낙관적 사고에 기반을 둔 위험과 지연 행동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 II. 이미지 이론: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 1. 외부적 이론과 내부적 이론

정치 심리학의 이미지에서 국제관계를 생각하면,<sup>2)</sup> 개인과 집단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미지와 국제 정치가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 이론과 내부적 이론이다.

외부적 이론에 바탕을 둔 이미지는, 국제관계에서 한국 -국가 행위자- 의 행동을 외부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주로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분포와 4강 체계, 힘의 균형, 육상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과 교차, 동맹 관계, 대외적 제약 요인, 동북아 국제 정치 경제 환경 등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전략을 분석할 수 있다.

내부적 이론 바탕을 둔 이미지는, 한국의 행동을 한국 내에서 압도적인 다양한 동기와 지각 -이미지- 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국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개인의 중요성, 심리적 환경(psychological

1) 문인철,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의식 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25-47.

2) Kertzer, Joshua D., and Tingley, Dustin.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the Paradigms.” *Ann. Rev. Pol. Sci.* 21:1, 2108. pp.1-23.

environment)을 강조하는 견해이다.<sup>3)</sup> ‘관료를 포함한 국내 정치 구조 혹은 이데올로기에서 대외 정책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sup>4)</sup> 힘주어 말하면 대외 관계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은 관계가 적다는 의미이다.

전자의 이미지는 대외적 환경을 바르게 파악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이미지는 합리적 모델은 거의 불가능하며, 사람들은 객관적 상황이 아닐지라도 인지 과정을 통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가치와 신념 등이 더 중요하다.

이 글은 후자의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다. 객관적·대외적 상황이 아니라 행위자의 신념과 지각, 가치 분석으로 개인·집단·국가 행동과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북한을 보는 관점은, 국제 환경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 2. 이미지 이론

볼딩(Boulding)은 자극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는 행태주의자들과는 달리 인간 행동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모든 과거 자극들의 결과이며, 의식적인 미래 이미지를 낳는다고 한다. “정책 결정자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자신이 지닌 이미지에 반응한다.”<sup>5)</sup> 사실에 대한 이미지가 핵심이다. 일어났거나 중대하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에 기반을 둔다. 행동은 이미지에 달려 있다.<sup>6)</sup>

3) Harold, Sprout and Margaret Sprou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cological Perspective in Human Affair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참조.

4) Mcdermott, Rose,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p. 47.

5) Boulding, K. E,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p. 120.

6) Boulding, Ibid, p. 6.; Eicher, Véronique Pratto, Felicia and Wilhelm, Peter, “Value Differentiation Between Enemies and Allies: Value Projection in 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1. 2013, pp. 127-144.

볼딩(Boulding)은 이미지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세계에 대한 주관적 개념으로 동시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면서, 이미지가 모든 지각과 사유에서 기본적·궁극적·기초적·통제적 요소라고<sup>7)</sup> 한다. ‘행동 단위의 전체적인 인지적·감정적·평가적 구조 달리 말하면 그 자체와 세계에 대한 내면적 관점’<sup>8)</sup>이 바로 이미지이다. 코탐(Cottam)도<sup>9)</sup>, 이미지를 인지적 장치이며 이는 미래 인지 혹은 정보 필터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sup>10)</sup> 즉 환경을 조직하며 예측하고 그 환경에 응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리프만(Lippmann)이<sup>11)</sup> 지적하는 바처럼, 이미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며, 사람들이 먼저 정의한 뒤에 본다는 뜻이다. 먼저 보고 정의하는 건 아니다.<sup>12)</sup>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실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이다. 이미지는 세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게다.<sup>13)</sup>

정치 심리학 어프로치인 이미지 이론은, 한국이 지닌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그 결과적 행동과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sup>14)</sup> 이미지의 기능은 대체로 인지적 한계에 근거하고 있는데, 인간은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엄청 복잡한 환경에서 모든 투입 정보를 가공할 수 없으며, 인간은 실제에 대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7) Samuels, W. J.,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and Contemporary Discourse Analysis,” in Samuels et al. ed., *The Economy as a Process of Valuation*, Chetenham and Lyme: Edward Elagar, 1997, p. 311.

8) Boulding, K. E.,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1, 1969, pp. 1-12.

9) Cottam, M., “Recent Developments in Political Psychology.” in Cottam M. and Shih, C. ed., *Contending Dramas: A Cogni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1992, p. 3.

10) Huddy, Leonie Sears and David, O. and Levy, Jack 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1) Lippmann W,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1992 참조

12) Jenkins, Tony, “Reflections on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Glimpsing the Roots of Peace Education Pedagogy.” *Factis Pax*, Vol. 7, No. 1, 2013, pp. 27-37.

13) Samuels, W. J.,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and Contemporary Discourse Analysis.” in Samuels et al. ed. *The Economy as a Process of Valuation*, p. 311.

14)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56.

을 단순화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투입되면 자신이 지닌 이미지(=belief)를 통하여 이 정보를 가려내어, 선 혹은 악, 바른 혹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거나 결정한다. 현실을 해석할 때,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가령 갈등 혹은 협력에 대한 행위자의 관점을 이미지가 결정한다. 따라서 인간 혹은 집단의 행동과 태도, 그 이미지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로 인하여 얽혀 있다.

이미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sup>15)</sup> 우리가 지니는 이미지는, 개인의 경험과 외부 메시지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안정화·변화되기도 하며, 첨가될 수도 있고, 급진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가령 메시지는 북한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가 인지하는 북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6)</sup>

이미지는 가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주관적 지식 구조 혹은 어느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이미지로도 구성된다. 가치 이미지는 메시지가 선 혹은 악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의 스케일에 속하게 하는 일종의 필터이다.” 가치 이미지는 특정 메시지의 영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sup>17)</sup>

어느 사회 어느 문화 어느 하위문화 어느 조직에서나, 기본 유대는 대중 이미지(public image)이다. 대중 이미지란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함께 지닌 본질적 특질을 의미하는 데, 모든 대중 이미지는 몇몇 개인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전파·공유될 때 비로소 대중적으로 된다.<sup>18)</sup>

볼당은 지속적 대중 이미지의 일차적 제공자는 조직이라고 강조한다. 조직이란,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함께 결합된 역할들의 구조이다. 이런 저런 사회에서, 단일 조직이 대중적 이미지를 창조·유지하는 데에 독점하지 않는다.

15) Rapport, Aaron, “Cognitive Approaches to Foreign Policy Analysis.” *On line Publication*, Mar. 2017.

16) Boulding, K. E,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참조.

17) Jenkins, Tony, “Reflections on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Glimpsing the Roots of Peace Education Pedagogy.” *Factis Pax*, Vol. 7, No. 1, 2013, pp. 27-37.

18) Boulding, *ibid.* p. 64.

단일의 대중 이미지는 없지만, 많은 대중적 이미지는 있으며 사회의 크나큰 틀 안에서 문화와 하위문화가 있는 만큼 있을 수 있다.<sup>19)</sup> 사실 하위문화란 다름 아닌 특정한 대중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미지는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과 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 방향도 다루는 수단이며, 고전적인 합리적 효용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sup>20)</sup> 앞에서 지적한 에피소드에 등장한 각자는 이런 하위문화 성원에 각각 속하며 당연히 다른 대중적 이미지를 지닐 수 있다.

한국 내에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지닌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북한에 대한 행동과 태도, 감정을 분석·예측·이해할 수 있다. 코탐의 이미지 이론에 의하면, 적의 이미지, 협력자의 이미지, 종속 이미지, 야만의 이미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응답과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이미지 이론은 일종의 최절약 모델(parsimonious model)<sup>21)</sup> 혹은 필요 최저 모델이다. 단순 모델이지만 강력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발휘하게끔 해 준다. 물론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다른 모델보다 우월하거나 더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

### Ⅲ. 북한의 이미지(public images)

#### 1. 북한 : 우리와 그들(us and them), 협력자(동맹자)와 적, 선과 악, 아름다움과 낙후

이미지 이론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면, 당연히 한국의 이미지와 북한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자신을 긍정적으로 그림으로써, 바람직한 자아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동기를 지닌다. 한편으로 부정적 묘사를 줄인다. 예

19) Boulding, *ibid.* p. 132.

20) Frantz Roger Chen, Shu-Heng Dopfer, Kurt Heukelom, Floris Mousavi, *Routledge Handbook of Behavioral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2016 참조.

21)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9 참조.

컨대 정책 결정자는 체면을 세우거나 건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국의 선의와 위신을 보여주려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sup>22)</sup> 이게 꼭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아주 어렵다.

한국이 지닌 북한의 이미지는, 복잡한 국제 환경을 단순화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지도하는 데 한 몫을 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이미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의 이미지는 남북한 관계와 한국의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좁게 보면 한국인은 내집단이며 북한은 외집단이다. 따라서 이미지 이론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내집단·외집단 관계로 볼 수 있다.<sup>23)</sup> 한국 내에서도 북한을 보는 여러 관점에 따라, 개인과 집단들을 외집단과 내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지 이론가들은 목표 양립성, 상대적 권력(능력)의 평가, 상대적인 문화적 지위의 평가에서 남북한 관계를 지각하고, 위협 혹은 기회를 정의한다고 보기도 한다.<sup>24)</sup> 권력에는 경제적 특징, 군사력, 국내의 정치적 안정,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등이 있다. 문화적 속성에는 문화적 교양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sup>25)</sup> 풀어 쓰면 북한이 한국에 비하여 권력 혹은 문화가 높은가 낮은가 아니면 같은가를 평가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발생하며, 이는 북한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는 걸 정당화한다. 거꾸로 한국의 태도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삼 차원에서 북한을 지각할

22) Jervis, Robert,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23) Koops, Willen, "National Identity and in-group/out-group attitudes in children: the role of sociohistorical setting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 Issue 1, Special Issue, 2011.

24) Alexander, M. G., Brewer, M. B. and Herrmann, R. K. 1999.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1, 1999, pp. 78-93.

25) Cottam, Ibid. p.56; Herrmann, R. K. & M.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1995, pp. 415-450; Herrmann, Voss, Schooler, &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1997, pp. 403-433.



수 있으며, 그래서 위협과 기회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협 혹은 기회를 보면, 북한이 위협적 혹은 방어적(선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익하며 기회를 마련하는가 혹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롭고 위협을 주는가이다.

한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대북 정책들을 선택하고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 환경에 따라, 군사적 옵션, 경제 제재, 위협, 경제·정치 협력, 대화, 정상 회담, 대북 투자, 이산가족 상봉, 경고, 항의, 유감, 사과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국이 취한 각각의 정책은 한국의 정책 결정자 혹은 대중이 지닌 각각의 북한의 이미지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가정이다. 한국 내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지닌 북한의 이미지가, 북한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한국의 감정과 태도, 반응, 정책을 이끌 수 있다.

## 2. 이미지와 사회 정체성

우리는 개인 정체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 수준에서 사회 정체성도 유지한다. 개인은 여러 사회집단에 속할 수 있다. 청년 집단이든 장년 집단이든, 상층 계급이든 하층 계급이든, 학생 집단이든 특정 노동 집단이든 그러하다. 타즈펠(Tajfel)의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하나의 개인적 자아(personal self)라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 성원의 서클들에 속하는 여러 자아들(selves)을 소유한다.<sup>26)</sup>

그러니 개인은 다수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기 쉽다. 인간은 자신의 하나 이상의 내집단을 범주화하는 내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런 집단의 성원 자격의 기초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며, 다른 집단과 경계를 만들어 낸다. 가령 우리는 이익, 인종, 나이, 성, 직업, 지역, 혈연, 학연 등에 근거하여 자신

26) Tajfel, Henri,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을 범주화하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마련이다.

“사회 정체성이란 사회 집단의 인지한 성원 자격에서 도출한 개인의 자아 개념이다.”<sup>27)</sup>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는 어느 집단에 속함으로써 얻는 사회 정체성을 나타낸다. 자기 범주화는 결국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이 원형(原型)은 우리에게 신념, 태도, 가치 등을 정의하게끔 한다.<sup>28)</sup> 인간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도 행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의 유사성을 과장하고 다른 집단과 차이점을 부풀려서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기울며, 신념과 관념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과는 거리를 두며, 우리 집단의 신념을 더욱더 감안한다. 우리가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동기를 지니며, 이는 자문화 중심주의, 혹은 내집단 편애(favoritism), 고정 관념, 내집단 규범 동조 등으로 나타난다. 집단 간 차별은 자신의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는 내집단 유사성, 매력, 동질성과 관련이 깊다.

사람들은 정치적 사건, 행위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치적 태도와 성향에 대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 편견일지라도 감정은 정보 가공, 정책 결정, 행동 성향,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북한이 한국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저절로 한국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한국과 다른 목표와 그 수단을 지녔을 때이다. 감정은, 종종 북한의 이미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며, 감정의 강도도 변한다. 부정적 감정으로는 분노(anger), 좌절(frustration), 분개(resentment), 혐오(disgust), 죄책감(guilt), 수치(shame), 동정(sympathy), 연민

27) Hogg and Vaughan, *Essential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Pearson, 2010. p. 75.

28) Hogg, Margaret K, “The impact of self-monitoring on image congruence and product/brand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34, Issue: 5/6. 2000, pp. 641-667.

(pity), 질투( envy), 시기( jealousy) 등이 있으며, 또한 두려움( fear), 걱정( anxiety)도 보기로 들 수 있다. 긍정적 감정도 중요하다. 자기 집단에 대한 긍지, 행복, 목표를 성취할 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즐거움 등이 있다.

이미지 이론은 집단 간 감정과 행동의 평가 단계를 이해하는 틀도 제공한다. 감정·평가 이론은 공식적으로 이미지 이론에 통합될 수 있다. 이런 평가적 감정은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특정한 행동 경향과 결부된다. 가령, 공격, 저항, 후퇴, 단념 등이다. 집단 간 관계에서 보면, 이런 감정적 반응과 연관된 행동 성향은 이미지와 그 집단의 행동 선택 선호로 이전된다.<sup>29)</sup> 검토한 감정도 특정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sup>30)</sup>

〈표1〉 전략적 선호와 이미지

북한의 이미지		위협/기회		전략적 선호
적 이미지	→	위협(높음)	→	붕쇄
야만 이미지	→	위협(높음)	→	동맹의 추구/힘 증강
제국 이미지	→	위협(높음)	→	굴종/가능할 때 반란
불한당 이미지	→	위협(온건/낮음)	→	고립 추구(crush)
낙후 이미지	→	기회(높음/온건)	→	도전, 위협을 감수
종속(식민) 이미지	→	기회(높음)	→	통제, 이용
협력자(동맹) 이미지	→	위협/기회	→	합의 협상, 공동 전략

출처: Cottam and Dietz-Hhleret, *ibid.* p. 68.

29) Diane M. Mackie and Eliot R. Smith,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Routledge, 2016, p. 21.

30)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68.

여러 이미지 이론가들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개인들과 집단이 품은 서로 다른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서로 다른 남한·북한 간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협력자라면 존경과 신뢰를 적이라면 분노를, 종속의 이미지는 혐오와 경멸을 낳고, 야만의 이미지는 두려움과 협박을 낳을 수 있으며, 제국의 이미지는 질투와 분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강도도 당연히 이미지의 변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sup>31)</sup> <표-1>로 간추릴 수 있다. 이 글은 코탐의 모델에 따라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볼당의 이미지 이론을 국제 관계 연구에 일관성을 지니고 풍부하게 적용한 인물이 바로 코탐이며, 이어진 경험적인 국제 관계 이미지 모델도 코탐의 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표준 이미지 모델이다.<sup>32)</sup>

### 3. 북한의 이미지: 이념형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는, 앞에서 검토한 세 차원이 독특하게 결합함으로써, 발생한다. 가능한 이미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남북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설명적·해석적·예언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협력적이든 갈등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협력자이든, 위협적이든 비위협적이든, 우리는 <표1>에 따라 북한의 이미지와 그 평가와 감정을 명료화하기로 한다. 적의 이미지에서 협력자의 이미지에 이르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며 관점이며 어쩌면 편견일 수 있다. 물론 주관적일지도 모른다.

#### (1) 적의 이미지

국제 정치학자들은 대부분의 관심을 적 이미지의 속성과 정책 선택에 미치

31) Cottam R. W, *Foreign Policy Motivation: A General Theory and a Case Stud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7, p. 19.

32) Schafer, Mark and Crichlow, Scott, *Groupthink Versus High-Quality Decision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 44.

는 그 결과를 확인·기술하는 데 쏟고 있다. 적의 이미지와 더불어, 우리는 북한을 악하고, 기회적이며 자기 이익에 의해서만 동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는 걸로 간주한다. 적의 이미지는 격하게 인지한 위협과 강력한 감정과 연결된다. 북한의 능력(권력)과 문화가 한국과 비슷할 경우에, 더욱더 북한을 적으로 인정한다.

북한이 한국에 위협을 가하면, 이는 공격 혹은 적어도 봉쇄를 통해 위협에 대처하려는 경향을 촉진한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함은, 봉쇄와 공격에 대한 도덕적 제한을 느슨하게 하며, 봉쇄·공격 행동을 정당화한다. 봉쇄전략은 유일의 확실한 대안이 되는데, 그 이유는 북한을 패배시킬 확률이 기껏해야 50 대 50 이기 때문이다. 북한이란 적을 봉쇄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더욱더 커지는 걸 막는 것 혹은 북한이 원하는 목표인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sup>33)</sup>

적의 이미지와 연관된 감정은, 분노, 좌절, 질투, 두려움, 불신, 아마도 마지 못해 표하는 경의 등이다. 한국은 북한의 성공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군사력 우위- 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북한을 비난한다. 북한에 적대적이며 북한과 대립할 때 북한이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과의 갈등을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적의 이미지는 강력하고 공격적 방어를 논리적 선택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방어가 위협자인 북한을 전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한다.

이런 이미지를 함께 하지 않은 시민 혹은 북한에 대한 아주 복합적 관점을 지닌 사람은, 종종 기껏해야 북한의 앞잡이, 북한의 괴뢰, 민족의 반역자로 비난을 받는다. 이걸 부정적 측면을 지닌다.<sup>34)</sup> 미덴츠(Middents)는 이렇게 쓰고 있다.<sup>35)</sup>

33)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69.

34)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68, pp. 11-14,

“적의 위협은 다른 경우에 수용할 수 없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한다. 신체 폭행과 살인은 전쟁, 전투 혹은 도발적 상황에서 정당화된다. 적은, 침략의 중심으로 기여하며, 복잡·급박한 내적 문제들 혹은 국내의 갈등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도 기여한다. 그밖에 적은, 사람 혹은 국가 자신의 지위를 측정하거나 자신의 우월 감정을 부풀릴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낸다.”

북한에 대한 적의 이미지는,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끼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적의 이미지는 북한에 대한 정보 가공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행동에 부정확한 이해를 낳기도 한다.<sup>36)</sup> 북한하면, 악, 잔인함, 침략성, 일인 독재, 인권 침해 등을 연상시킨다. 북한에 대한 폭력/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악마화할 수 있다.<sup>37)</sup>

북한을 사악한 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오래되었다. 특히 냉전 시대 동안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견해가 한국 내에서 압도한 듯하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견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sup>38)</sup>

적의 이미지는 종종 극단적 형태의 편집증을 낳는다. 이런 편집증은 한국으로 하여금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 북한을 보게끔 한다. 홀스티(Holsti)도 적의 이미지를 ‘내재적인 나쁜 신념 모델(inherent bad faith model)’과 연관 짓는다.<sup>39)</sup>

적으로 간주된 북한의 행동 동기는 실제로 오해될 수 있으며, 김정은 전체주의 체제 혹은 북한 주민에 대하여 한국이 적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35) Middents, G. J,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nemy-making.”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Vol. 8, 1990, pp. 44-48.

36) Mcdermott. Rose,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p. 104.

37) Eicher, Véronique Pratto, Felicia and Wilhelm, Peter, “Value Differentiation Between Enemies and Allies: Value Projection in 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1, 2013, pp. 127-144.

38) 국방부, 『국방백서』 1995, 1996, 2016; Maddrell, Paul. ed., *The Image of the Enem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2015.

39) Tan, Er-Win, *The US Versu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London: Routledge, 2014, pp. 27-28.

면,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 북한도 한국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거울 이미지이다. 이어진다면 안보의 딜레마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상승도 초래한다.<sup>40)</sup>

일반적 이미지로서 적의 이미지를 북한에 적용하는 건, 남북한 관계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게 하며, 북한의 행동을 분석·예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제한한다.<sup>41)</sup> 남북한 관계에서 이런 넓고 일반적 방법으로 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경우에 부정확하며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북한의 이미지의 복잡한 변이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 (2) 야만의 이미지

야만의 이미지는 북한을 악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식 파괴를 일삼는 걸로 그럴 때 형성된다. 북한을 억제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합리적으로 비용과 편익에 근거해 일을 처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sup>42)</sup>

이건 레이건 행정부 당시 KAL기를 격추시킨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칭한 것과 같다. 야만의 이미지는 -북한이 군사적 능력에서는 우월하지만- 문화적으로 열등한 걸로 평가하면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볼 때 고정된다. 보기를 들면, 고대 그리스인의 야만인에 대한 이미지에 찾을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성, 간계, 단일의 정책 결정, 호전성과 연관되며, 고대 게르만족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다. 야만의 이미지와 연관된 감정은, 분노와 두려움이다.<sup>43)</sup>

40)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69.

41) Alexander, Michele G. Levin, Shana and Henry, P. J.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1, 2005, p. 29.

42) Mackie Diane M. and Eliot R. Smith,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Routledge, 2016, p. 212.

43) Camaroff, Joh. L. Setern, Paul C, Perspective on Nationalism and War. New York: OPA, 2000, p. 71.

권력과 지위의 비대칭 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을 보면, 한국이 문화적으로 북  
한보다 우월하지만, 북한보다 군사력에서 크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  
경우에, 한국의 자원과 입장에 북한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북  
한을 잠재적 침략자로 지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협을 하는 야만의 북  
한과 싸울 즉각적인 기회는 없으며 북한을 유화하던지 아니면 한국에 유리할  
때까지 한국이 북한과 절연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의 가치 혹은 목표를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수동적으로 혹은 비겁하  
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전멸의 위험을 무릅쓰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의 선택을 두고 긴장한다. 이런 긴장은 유일의 바르고 신중한 행동 경로를 택  
함으로써 완화된다.<sup>44)</sup> 북한을 야만의 이미지에 본다면, 대북 정책에서, 수동성  
(passivity)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 경로일 수 있다. 이런 이미  
지는 공격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하지는 않는다. 능력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두  
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적 충돌을 피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야만의 이미지를 지닌 북한과 협상하는 데 더 합리적 행동 경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동맹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한국이 막지 못  
하면, 미국과 일본의 국가 이익에 미칠 해악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을 우리 편  
에 서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혐오적인 북한과 직접 경쟁하여 이 위협을 폭  
력을 동원하여 제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국이 그런 군사적 능력  
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고 미국, 일본 등과 동맹을 맺  
으며, 북한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문화적으  
로 우월하지만 능력이 약한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를 절멸시키지 못하고,  
이들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추구하였다.<sup>45)</sup> 한국도 이스라엘과 비슷  
하게 행동할 수 있다.

44) Alexander, Michele G. Levin, Shana and Henry, P. J.,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1, 2005, p. 31.

45)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69-70.



### (3) 불한당(rogue) 이미지

불한당 이미지는 냉전 이후의 산물이다. 냉전 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은 — 다른 국가들이 주로 능력과 문화에서 열등한 걸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 이런 국가들을 통제·지지할 수 있었다. 북한을 중국과 소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이 논리를 펼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세르비아, 이란, 수단,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은, 능력과 문화에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의 위협을 구성하였다.<sup>46)</sup>

불한당 국가를 프린스턴 대학 사전은 “국제 행동에서 다른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정치 사전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대량 파괴 무기 획득에 전념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보기도 한다. 불한당 국가(rogue states)는, ‘부랑자 국가(pariah states)’ ‘무법국가(outlaw state)’ ‘변절자 국가(renegead state)’로 불리기도 한다.<sup>47)</sup>

불한당 국가로 분류된 북한은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테러 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고, 대량 파괴 무기를 획득하려고 하거나 확산시키려고 하며, 불법 무기와 마약 거래, 돈세탁 혹은 위조지폐와 대규모 범죄 활동, 밀수 등에 개입한다.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에 반하는 폐쇄 경제 체도를 유지하고 있다. 흔히 북한은 기존의 국제 규범과 조약을 공공연히 무시한다. 이는 국제 사회의 김정은의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하고 있는 핵무기 게임은 그 전형적인 보기이다.<sup>48)</sup> 북한을 거의 완벽한 불한당 국가이다.

46)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p. 23-46.

47) Rose, Jason, “Defining the Rogue State: A Definitional Comparative Analysis Within the Rationalist, Culturalist, and Structural Traditions.” *Journal of Political Inquiry*, Vol. 4, 2011, pp. 1-36.

48) van der Meer, Sico, “How Rogue states play the game: the cas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in J. de Zwaan E. Bakker and S. Van der Meer et al., ed., *Challenging World, Hague: Asser Press*, 2009, pp. 221-232.

“북한을 고전적 불량국가의 거의 완벽한 보기로 기술할 수 있다. 특별히 다소 광적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종종 서구 미디어가 그리는 냉전 형태의 정부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적수들에 의해 전복되지 않고 불한당 방식으로 국제 정치 게임을 하는 이 정권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다.”<sup>49)</sup>

불한당 국가인 북한에서 김정은만이 결정을 내리며 공격적인 행동 성향이 있으므로, 북한은 협상을 위한 합리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불한당 이미지에 대한 반응은 우월 감정에 의해 동기화된다. 나쁜 문제이므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수업은 강제로 해야 한다. 나쁜 아이와 협상할 필요는 없고, 나쁜 아이를 처벌해야 한다. 북한과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바른 일을 할래 아니면 처벌을 받을래, 두 전략뿐이다. 미국의 이라크(후세인 시기) 침공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도 같은 본패를 보여줄 수 있다. 과거 미국이 응징한 이라크 정권 다음 차례가, 북한 정권으로 보기도 하였다.<sup>50)</sup>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제적 혹은 군사적 제재를 통하여,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국제연합의 제재 결의, 한국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 제한, 대화 중단, 개성 공단 철수 등을 들 수 있다. 불한당 국가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비확산 레짐 전략 등도 여기에 속한다. 혹은 핵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한국의 협력자로 만들려는 전략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불한당 이미지를 지닌다면, 복합적인 북한 이미지를 혐오하며 불한당 이미지를 지닌 정책 결정자들의 압력으로 반대의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sup>51)</sup> 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불한당 국가가 이런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비불한당 국가(non-rogue states)와 마찬가지로 한다.<sup>52)</sup>

49) Van der Meer, Ibid. p. 223.

50) Kaplan, R. D, “North Korea, the Next Iraq?” *May issue, the Atlantic*, 2009.

51)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26.

#### (4) 동맹자/협력자 이미지

남북한 관계에서 협력자 이미지는 긍정적인 목표 상호의존, 비슷한 능력, 동일한 지위라는 특징이 있을 때 마련된다. 협력자 이미지는 한국이 북한을 자비로운 협력자로 간주할 때 발생한다. 적의 이미지와는 달리, 비위협적이라고 평가된 관계에서 협력자 이미지는 협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협력자 이미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한국과 북한이 함께 일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북한의 긍정적 특질에 초점을 둔다. 완전한 남북한 협력을 막는 의구심을 없애고, 이와 관련된 모든 도덕적 의심도 풀리게 한다. 북한을 온통 바람직한 의미로 기술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가 수용 가능하며 윤리적 의미에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림을 구성한다.<sup>53)</sup>

이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지 않으며, 북한을 선하며 이타적이고 고상하다고 보면서, 북한과의 협력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협력자 이미지는 북한과의 호의적인 상호 작용을 고무할 수 있다.<sup>54)</sup> 만약 북한도 한국을 이처럼 인식할 때, 협력자 고정 관념은 서로의 거울 이미지가 된다.<sup>55)</sup>

한국과 북한이 함께 자원을 형성함에 있어 북한을 동맹자 이미지로 본다면 어느 국가들 혹은 어느 동맹에 대응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동맹자의 상호 신뢰성 문제이다.

동맹자 이미지로 북한을 본다면, 한국과 북한이 비슷한 선호를 지녀야 한다. 북한이 자기 이익이 있을 때에만 동맹을 형성한다면, 이는 위험하다. 북한 자체에 해가 되면 북한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령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52) Capriolo, M. Hudson, and Trumbore, P. F. 2005,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9, 2005, pp. 770-791.

53) Diane M. Mackie and Eliot R. Smith. 2016.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Routledge, 2016, p. 211.

54) Eicher, Véronique Pratto, Felicia and Wilhelm, Peter, "Value Differentiation Between Enemies and Allies: Value Projection in 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1, 2013, p. 128.

55) Bronfenbrenner, Urie, "The Mirror Image in Soviet-American Relations: A Social Psychologist's Report."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Summer 1961, pp. 45-56.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의 유사성으로 (합리적인?) 동맹자 이미지를 끌어낼 수 있지만, 북한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물론 정보가 없는 것보다 정보가 있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말이다. 북한의 선 호와 한국의 것 간에 넓은 간격이 있을 수 있다.<sup>56)</sup>

물론 협력자/동맹자의 이미지에서도, 협력자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한국과 북한이 집합적 결과를 낳기 위해 결합·상호 작용할지라도, 양쪽에서 항상 정책 결정의 모순과 비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변절이 북한에 더 큰 보상을 안겨 줄 여지가 클 수 있다. 상호 협력과 교류는, 변절자(북한)가 협력자(한국)를 이용해 먹는 데 취약할 수 있다.

#### (5) 낙후(degenerate) 이미지

낙후 이미지는 한국이 북한을 희생하여 목적 달성의 기회를 지각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정 관념을 지닐 경우에 낙후 이미지가 일어나기 쉽다. 첫째, 북한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결핍된 동기를 지닌다. 둘째, 북한 체제는 명백한 방향 감각이 없으며 효과적인 전략을 구성할 능력이 없는 고도로 분권화된 리더십이 없다. 셋째, 북한이 권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효과적인 북한 주민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발휘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북한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고무하거나 혹은/그리고 합리화하는 견해이다.<sup>57)</sup> 북한은 문화적으로 쇠퇴한 행위자라는 뜻이다. 북한에 대해 낙 후 이미지를 지닌 개인과 집단은, 이런 견해를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겁쟁이로 본다.

56) Gartzke, Erik *Alliances, Percep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2 참조.

57) Camaroff, Joh. L. Setern, Paul C, *Perspective on Nationalism and War*. New York: OPA, 2000, p. 72;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p. 55-56.

낙후 이미지와 연관된 감정은, 경멸, 경시, 혐오감, 분노를 일으키며, 이 모든 건 결국 증오를 낳는다. 이것과 결합되어 공격적 집단인 북한을 제거하려는 욕망 그리고 북한의 능력을 위협하게 과소평가한다. 비록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닐지라도, 낙후 이미지를 지니면 북한이 무질서하며,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고 폐쇄적이므로 한국이 북한을 제거하거나 지배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sup>58)</sup> 1990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과 대립한 후세인의 견해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행색도, 낙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sup>59)</sup>

하지만 보기를 들면,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이 얼마나 급속히 ‘좋은 사람(good guys)’이 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얼마나 ‘악당(bad guys)’이 되었는가를<sup>60)</sup> 살펴보면, 낙후 이미지는 변할 수 있다. 2018/2019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북한의 김정은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도 늘고 있다는 소문이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이 지닌 상호적인 적의 이미지가, 적의 이미지와 낙후 이미지가 결합된, ‘적+낙후 이미지’로 변환된다면, 적의 이미지보다 남북한 사이에 분쟁과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sup>61)</sup>

#### (6) 종속(식민) 이미지와 제국 이미지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하며 더 높은 문화적 지위를 지녔다고 인지할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북한을 통제·이용할 수 있다. 바로 종속 이미지이다. 종속 이미지는 북한을 취약하고 무질서하고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북한에 지침을

58) Herrmann, R. K. & Fischerkeller, M. P.,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1995, p. 431.

59)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55-56.

60) Camaroff, Joh. L. Setern, Paul C, *Perspective on Nationalism and War*. New York: OPA, 2000, p. 72.

61) Schafer, Mark and Crichlow, Scott. *Groupthink Versus High-Quality Decision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 44.

제시하고 북한을 지도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종속 이미지는 지배, 통제, 이용에 대한 도덕적 금지를 줄이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배와 영향이 북한을 해하기보다는 돕는 길로 해석하게 한다. 능력과 문화라는 점에서 종속 이미지는 아주 뒤떨어진 북한을 한국이 통제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자리 잡는다.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아래와 같은 두 집단 가운데 한 집단에 속하는 걸로 편의상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온건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집단인데, 한국과 가까이 협력하는 의지를 지닌 집단이다. 이에 반하여 다른 집단은 선동적이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데, 한국의 목적에 반하며, 한국의 적들(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봉사하며 그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집단이다.<sup>62)</sup>

보기를 들면, 냉전 시대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이다. 당시 미국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나아가는 국가들을 처벌하고 때때로 그 정부를 전복시켰다. 보기를 들면, 1953년 이란 정부, 1954년 과테말라, 1973년 칠레 정부를 전복시켰다. 사회주의에 전염될 거라는 두려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거라는 두려움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았다. 갈등의 책임을 종속 국가에 돌릴 수 있다.

종속 이미지와 제국 이미지는 현재로선 한국과 북한에 뚜렷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남북한의 상호 의존의 영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발생할 수 있다. 확대하면 종속/제국 이미지는 주변 강대국(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제국 이미지를 빼고 여섯 이미지를 북한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미지들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와 이에 수반된 감정은 각각에 맞는 특별한 응답 전략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가령 적의 이미지는 봉쇄전략을, 야만 이미지는 동맹의 추구하고 힘의 증강, 불한당 이미지는 북한에 대한 따끔한 응징, 낙후 이미지는 북한을 제거할 기회와 북한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낳을 수 있으며, 종속 이미지는 그 이용과

62)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p. 73.

통제, 협력자(동맹자)이미지는 합의와 협상, 남북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과학적인가 혹은 객관적인가라는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하여튼 북한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한국 사회 내에서 만들어 내어 혼재하게 할 수 있다.<sup>63)</sup>

#### IV. 결론

북한에 대해 적의 이미지와 협력자의 이미지는 대칭적이다. 한국에서 생각하면, 북한에 대한 적의 이미지를 지닌 장년 세대와 북한에 대한 협력자의 이미지를 지닌 청년 세대는 서로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장년 세대가 높은 문화적 지위를 지니지만 청년 세대보다 힘이 약하다면 청년을 잠재적 위협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이 문화적으로 열등하지만, 그 힘이 장년의 지위와 자원을 강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장년 집단을, 청년 집단의 침해적 위협으로부터 격리하는 행동 성향을 보이게 할 수 있다.<sup>64)</sup>

영국의 정치가인 처칠(Churchill)의 보기를 들면,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야당 의원과 논쟁을 하였는데, 야당 의원이 자리에 일어서서 처칠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처칠 선생, 내가 당신 아내라면 당신을 독약 넣은 차를 먹여 죽이겠어요.” 그러자 처칠은 그녀에게 응수하였다. “부인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차를 마실 거요.”<sup>65)</sup> 처칠과 야당 의원 사이에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

63) Herrmann, R. K. & Fischerkeller, M. P.,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1995, pp. 415-450; Alexander, M. G., Brewer, M. B. and Herrmann, R. K.,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1, 1999, pp. 78-93; Herrmann, Voss, Schooler, &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1997, pp. 403-433.

64) Diane M. Mackie and Eliot R. Smith,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Routledge, 2016, p. 211.

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극단적이지만 이 비유는 한국 내에 북한에 대한 적의 이미지와 협력자/동맹자의 이미지 간의 갈등과 대립에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서로 다른 북한 이미지를 지닌 한국 내의 집단들 사이에 차별, 편견, 갈등, 공격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령 협력자의 이미지는, 적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존, 권력, 물질적 행복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상징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보는 다른 관점과 지식, 이미지에 따라, 자신과 다른 이미지를 지닌 집단을 배척하고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품을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서로 위협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셋째, 집단 간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에서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북한 이미지를 지닌 집단들 사이에 부정적 고정 관념을 낳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결국 편견을 낳는다. 편견의 수준이 서로 높아질 수 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먼저, 우리가 지니는 북한의 이미지들은 공동 진화하는 계속적 과정의 일부이며<sup>66)</sup> 변화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성원이 지닌 북한의 이미지는 서로 메시지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상징은, 어느 이미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와 그 수용자의 북한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상호 작용한다면, 세 유형의 결과를 가정할 수 있다. 2018-2019년 남북/미북 정상 회담이란 새로운 메시지를 보기로 들어보자. 첫째, 이 메시지에 수용자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수용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혹은 기존 북한 이미지를 수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게 걸러 내버릴 수 있다. 이 건 배경 소음과 비슷하다. 둘째, 기존의 이미지에 단순히 첨가될 수 있다. 새

65) Navarro, Jose, "the Psychology of Hatred," *the Open Criminology Journal*, Vol. 6, 2013, pp. 10-17.

66) Samuels, W. J.,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and Contemporary Discourse Analysis," in Samuels et al. ed. *The Economy as a Process of Valuation*. Chetenham and Lyme: Edward Elagar, 1997, p. 312.



로운 투입이 북한의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질을 수정하지는 못한다. 셋째, 그 수용자가 지닌 북한의 이미지를 혁신적·급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재조직할 수 있다. 마지막 결과는 남북한 관계에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협력자/동맹자의 이미지로 전환된다면, 통일 교육과 평화 교육에서 변환을 기대할 수 있다.<sup>67)</sup> 그렇지만 성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계속 검토하면, 북한의 이미지는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독차지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북한의 이미지는, 정치 심리학자들의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년과 청년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대 간, 세대 내, 집단 간, 집단 내, 지역 간, 지역 내에서도 북한의 이미지가 다르다. 한국 사회의 한 집단만이 북한의 이미지를 독점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의 북한 이미지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크나큰 틀 안에서 여러 문화와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니 인구 오천만 명이 넘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일은 정상이 아니다. 다양한 북한 이미지의 공존은 실재하고 피할 수 없으며,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린 공적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 열린 공적인 논의를 통한 북한의 이미지들의 건강한 경쟁은 사회경제적 진보를 낳을 수 있다. 열린 논의와 숙의, 경쟁이란 동태적 과정에서, 결코 하나의 북한 이미지를 끌어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북한의 이미지들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며 물론 여기에는 이런 북한의 이미지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균형 모델도 포함되어야 한다.<sup>68)</sup> 불딩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인류의 주요한 자랑거리는, 다름 아닌 정보를 크고 복잡한 이미지들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의 이미지는 아직 실현되

67) Jenkins, Tony, “Reflections on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Glimpsing the Roots of Peace Education Pedagogy.” *Factis Pax*, Vol. 7, No. 1, 2013, pp. 27-37.

68) Clark, J. M., “Competition: Static Models and Dynamic Asp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45, No. 2, 1955, p. 457.

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sup>69)</sup>

“논의의 과정은 결정들이 논의를 끝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질상 일시적인 결정들에 의해 중단되고 있다... 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성공적인 정치 과정에서 모든 결정은 잠정적인 게다. 우리는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갈등상태에 살고 있다. 하나의 결정은 갈등의 부분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결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sup>70)</sup>

북한의 이미지를 형성·수정·개량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공적 논의와 속의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여러 이미지를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는 요강(要綱)으로 이용할 수 있다.<sup>71)</sup> 한국 내에서 어느 한 세력에 의한 북한 이미지의 독점과 강요는 위험하고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sup>72)</sup>

배경 지식 없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이며 조작적인 이미지의 수용과 변화는 잘못된 선택과 오해, 편견에서 비롯될 위험을 항상 수반한다. 따라서 한국 시민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역사, 정치 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학습은 결국 지적한 이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용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sup>73)</sup>

한국의 사회 집단이 각각 지닌 북한의 이미지는, 낙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는 합리성, 증거, 실재가 아니라 내가 욕구하므로 그런 이미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희망과 낙관에만 기초하는 북한의 이미지이다. 가령 협력자 이미지를 지닌 사람은 -북한의 적대적 행동을 할지라도- 제재, 위협, 봉쇄 등의 전략을 선택하는 데 지연 행동(procrastination)을 할 수 있다.<sup>74)</sup>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우리가 지닌 북한

69) Boulding, K. E,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pp. 25-26.

70) Boulding, *Ibid.*, p. 103.

71) Frantz Roger Chen, Shu-Heng Dopfer, Kurt Heukelom, Floris Mousavi, *Routledge Handbook of Behavioral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2016, pp. 36-41.

72) Boulding, *Ibid.*, p. 141.

73) Brennan, Jason, *The Ethics of Vot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 184.

에 대한 이미지가 기반하고 있는 낙관적 사고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

---

74) Sigall, H. Kruglanski, A. Fyock, J, "Wishful Thinking and Procrastin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 15, No. 5, 2000, pp. 283-296.

##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 문인철,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인식 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Alexander, M. G., Brewer, M. B. and Herrmann, R. K,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1, 1999.
- Alexander, Michele G. Levin, Shana and Henry, P. J,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1, 2005.
- Boulding, K. E,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 Boulding, K. E,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 1, 1969.
- Brennan, Jason, *The Ethics of Vot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Brewer, J. D, *Ethnograph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 Bronfenbrenner, Urie, “The Mirror Image in Soviet-American Relations: A Social Psychologist’s Report.”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Summer, 1961.
- Camaroff, Joh. L. Setern, Paul C, *Perspective on Nationalism and War*. New York: OPA, 2000.
- Capriolo, M. Hudston. and Trumbore. P. F,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9, 2005.
- Clark, J. M, “Competition: Static Models and Dynamic Asp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45, No. 2, 1955.
- Cottam, M, “Recent Developments in Political Psychology.” in Cottam M. and Shih. C. ed. *Contending Dramas: A Cogni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1992.
- Cottam, Martha L., Dietz-Hhler Beth, Mastors, Elena. Preston, Thomas, *Introduction to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2010.
- Cottam, Richard W, *Iran and the United States: A Cold War Case Stud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8.
- Diane M. Mackie and Eliot R. Smith,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Routledge, 2016.

- Eicher, Véronique Pratto, Felicia and Wilhelm, Peter, "Value Differentiation Between Enemies and Allies: Value Projection in 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1, 2013.
- Frantz Roger Chen, Shu-Heng Dopfer, Kurt Heukelom, Floris Mousavi. *Routledge Handbook of Behavioral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2016.
- Gartzke, Erik Alliances, *Percep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2.
- Herrmann, R. K. & Fischerkeller, M. P,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1995.
- Herrmann, Voss, Schooler, &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1997.
- Hogg and Vaughan, *Essential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Pearson. 2010.
- Hogg, Margaret K, "The impact of self-monitoring on image congruence and product/brand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34 Issue: 5/6, 2000.
- Huddy, Leonie Sears and David, O. and Levy, Jack 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Jenkins, Tony, "Reflections on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Glimpsing the Roots of Peace Education Pedagogy." *Factis Pax*, Vol. 7, No. 1, 2013.
- Jervis, Robert,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Kaplan, R. D, "North Korea, the Next Iraq?" *the Atlantic*, May issue, 2009.
- Kertzer, Joshua D, Tingley, Dustin.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the Paradigms." *Ann. Rev. Pol. Sci.* 21:1, 2108.
- Koops. Willen, "National Identity and in-group/out-group attitudes in children: the role of sociohistorical setting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 Issue 2011.
- Levin, S. & Sidanius, J, "Social dominance and soci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group favoritism or outgroup derog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20, 1999.
- Lippmann W,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1922.
- Maddrell, Paul. ed, *The Image of the Enem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2015.
- Mcdermott, Rose,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 Middents, G. J,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nemy-making."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Vol. 8, 1990.
- Navarro, Jose, "the Psychology of Hatred." *the Open Criminology Journal*, Vol. 6, 2013.
- Rapport, Aaron, "Cognitive Approaches to Foreign Policy Analysis." *On line Publication*, Mar. 2017.
- Rose, Jason, "Defining the Rogue State: A Definitional Comparative Analysis Within the Rationalist, Culturalist, and Structural Traditions." *Journal of Political Inquiry*, Vol. 4, 2011.
- Samuels, W. J, "Kenneth E. Boulding's the Image and Contemporary Discourse Analysis." in Samuels et al. ed., *The Economy as a Process of Valuation*. Chetenham and Lyme: Edward Elagar, 1997.
- Schafer, Mark and Crichlow, Scott, *Groupthink Versus High-Quality Decision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Sherif, M, *In common predicament: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66.
- Sidanius, J. and F. Pratto,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Sigall, H, Kruglanski, A. Fyock, J, "Wishful Thinking and Procrastin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 15, No. 5, 2000.
- Sprout Harold and Sprout, Margare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cological Perspective in Human Affair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Tajfel, Henri,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Tan, Er-Win, *The US Versu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London: Routledge, 2014.
- van der Meer, Sico, "How Rogue states play the game: the cas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in Bakker, J. de Zwaan E. and Van der Meer S. et al. ed., *Challenging World*. Hague: Asser Press, 2009.
-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9.

Abstract

The Different View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Image Theory

Byunghee Rhee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the political psychology. The study of various and changing images on North Korea which South Korean policy makers have, make us better understand the South Korean policy dealing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images, We can find different poses and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For example, the enemy image supports containment tactics, the barbarian image facilitates a quest for alliance or strengthening alliance and power augmentation, the rogue image make us leaning towards hard retribution, the degenerate image increases chances to destroy North Korea and underestimate the power of North Korea. Though these images are subjective and non-logical, we can use them as the limits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e try to keep our eyes wide open to the acceptance of the blind and operational images on North Korea without the background of scientific knowledge as well as the danger of the wishful thinking.

Keyword: the Image Theory,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Wishful Thinking, Enemy Image, Rogue Image, th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투고일: 2019년 7월 1일, 수정일: 2019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6일